

I. 남북간 의료교류 실태

1)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

- ① 북미기독교의료선교회(CAMM)를 통한 지원(1991: 사랑의의료품나누기 → 1997: 한민족복지재단)
- ② 유진-벨을 통한 지원(1996: 식량 → 1997: 의료)

2) 남측 NGO의 대북 진출

- ① 한민족복지재단의 라진선봉지역 진출(1997)
- ②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 지원(1998)
- ③ 한국 유진-벨재단의 출범(2000)
- ④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위원회 결성(2000)

단체별 대북 보건·의료 지원 실적( ~ 2001.5)

단체 명	개시	대상	지원 내역	지원 규모
한민족복지재단 (사랑의의료품나누기운동)	1991	① 보건성(조선의학협회) ② 평양의학대학병원 ③ 평양시제1인민병원 ④ 평양시제3인민병원 ⑤ 평양산원 ⑥ 평안북도소아병원 ⑦ 선봉군인민병원	· 의약품과 · 병원용품 · 의료설비 · 제약공장 · 장비자재 · 구충사업	\$12,253,585-
유진-벨재단	1996	① 큰물피해대책위원회 ② 보건성 ③ 3예방원 산하 요양소 ④ 적십자병원	· 결핵사업 · 농업장비 · 식량 등	\$10,500,009-
의약품지원본부	1997	보건성(조선의학협회)	· 약품원료 · 의약품	\$891,000-
한국이웃사랑회	1997 2001	해외동포원호위원회 평양시제2인민병원	· 의약품 · 페인트	의약품 4t 페인트 19t
월드비전	1998	개천시인민병원	· 의료품	\$147,365-
남북어린이어깨동무	2000	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	· 구충제	메벤다졸1천만정

II. 남북간 의료교류 전망

1) 확대 가능성

- ① 남북교류의 확대, 활성화
- ② 북한의 필요성
- ③ 교류 성과의 구체적인 결실

2) 유의 사항

- ① 북한의 의료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
- ② 남측의 과당 경쟁(공급 > 수요)
- ③ 북측의 기대치 증가

<주요 일지>

- 1997.11. 6 한민족복지재단 라진선봉시에서 ‘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’체결 - “제약공장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키로”
- 1997 . . 유진-벨 대북 결핵사업 활동 시작
- 1998. 7.31 한민족복지재단 ‘선봉군인민병원 운영에 관한 합의서’ 체결- “남측 의료진 12명 (장기 6, 단기 6) 현지 체류키로” ※유성희 대한의사회 회장 방북 동행
- 1998. 9.22 한민족복지재단 선봉군인민병원에서 치과 진료(Dr. 박태용)
- 1999. 9. 2 의약품지원본부 대표단 방북
- 1999. . . 평양적십자병원 의사 3명 John’s Hopkins병원 연수(연세대 인요한 교수)
- 2000. 7.20 한민족복지재단과 조선의학협회 ‘어린이들을 위한 보건·의료사업 합의서’ 체결 - “각 도별 소아병원 현대화와 급식사업에 관하여”
- 2000.11. 3 한민족복지재단과 평양의학대학병원 간에 ‘상호교류·협력을 위한’ 합의서 체결
- 2000.11. 3 메드트로닉 의료팀 평양의대병원에서 시술(연세대 김성순 교수)
- 2000.11.10 한민족복지재단 신의주시의 평북도 소아병원 현대화 시작
- 2001. 4. 2 서울대병원과 평양의대병원 ‘의료기술 협력 협약서’ 체결(한민족복지재단 주선)
- 2001. 4.24 한민족복지재단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안과, 치과 협력사업 시행키로 합의
- 2001. 5.17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조선의학협회 ‘어린이 집단 구충사업에 관한 합의서’ 체결 (한민족복지재단 주선)
- 2001. 6.10 서울대병원 김용진 교수팀 평양의대병원에서 심장병 수술 및 강의 실시
- 2001. 6.15 한민족복지재단 평양의학대학병원 및 평양시제1인민병원 의료협력사업 점검 - 이비인후과 Dr. 손영규 동행
- 2001. 7. 7 한민족복지재단 평양의학대학병원과 의료 교류(Dr. 김진복 - 위암 수술·강의, Dr. 박종철 - 정신과 세미나)
- 2001. 8. . KBS 의료팀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안과 수술(Dr. 김재호)
- 2001. 8.21 한민족복지재단 신의주 평북도소아병원에서 치과 진료(Dr. 박태용)
- 2002. 4.27 한민족복지재단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실시(공안과 팀)
- 2002.10. . 한민족복지재단 평양의학대학병원 구내 어린이심장병센터 개원, 의료진 방북